

2021년 교육혁신원

좋은 강의 에세이 모음집



머리말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은 학생의 입장에서 본 좋은 강의, 감동적인 강의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선정된 강의에서 사용된 강의 방법을 우리 대학 내의 교수, 강사님들께 확산시킴으로서 우리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강타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는 다른 뉴 노멀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대학 역시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의의 질과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 훌륭한 강의를 통해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인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좋은 강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교수님들께 작지만 알찬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도 좋은 강의를 선택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혁신원은 앞으로도 우리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혁신원에서 주최한 『2021년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신 교수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강의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 교수님들과 응모해 주신 학생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차>

■ 머리말

웹프로그래밍 (2021학년도 2학기) _ 고석훈 교수 권은아 _ 자연과학대학 전자물리학과 18학번	3p
English 2 (2021학년도 2학기) _ Todd Jobbit 교수 김서윤 _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20학번	5p
이베로아메리카지성사(2) (2021년 2학기) _ 김선이 교수 김채현 _ 통번역대학 스페인어통번역학과 19학번	8p
영제국과 영연방 (2021년 2학기) _ 하정연 교수 노유은 _ 동유럽대학 루마니아어과 17학번	11p
스페인어문학번역 (2021학년도 1학기) _ 이은성 교수 송채린 _ 통번역대학 스페인어통번역학과 19학번	13p
채권의 발생과 실현 (2021학년도 2학기) _ 신지혜 교수 오희찬 _ 영어대학 ELLT학과 19학번	16p
문화와텍스트(2) (2020학년도 2학기) _ 김수연 교수 이가연 _ 영어대학 영미문학·문화학과 20학번	18p
광고매체론 (2021학년도 1학기) _ 정윤재 교수 이성도 _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광고·PR·브랜딩전공 17학번	20p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021학년도 1학기) _ 윤순경 교수 이예량 _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17학번	22p
미네르바인문(2)읽기와토의.토론 (2020학년도 2학기) _ 정현경 교수 최재형 _ 상경대학 경제학전공 17학번	25p
국제관계개론 (2020년도 2학기) _ 남궁영 교수 최현정 _ 서양어대학 프랑스.EU전공 19학번	29p
디지털미디어스토리텔링 (2020학년도 2학기) _ 김세익 교수 최혜민 _ 사범대학 독일어교육과 17학번	31p

조금 짝세지만, 괜찮아. 안전한 웹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2021학년도 2학기) _ 고석훈 교수

권은아 _ 자연과학대학 전자물리학과 18학번

1. 서론

처음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 공지 메일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 떠오르는 수업은 굉장히 많았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속해 있는 자연대와 공학대에는 열정 있는 교수님이 많으셨고 그렇기에 하나하나 추천하고 싶은 강의가 많았다. 그런데도 내가 추천하는 강의는 컴퓨터, 전자시스템공학전공의 2학년 전공 강의인 웹 프로그래밍으로 정했다.

2. 본론

고석훈 교수님은 여태까지 대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수업을 들어보지 못한 교수님이다. 물론 컴퓨터, 전자시스템공학전공은 나를 포함하여 이중전공을 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교수님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데도 아는 선배들과 친구들 말로는 고석훈 교수님의 경우에는 과제가 정말 많고 수업의 양이 많다고 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다. C언어와 파이썬, 자바는 조금 다룰 줄 알았지만, html을 기반으로 한 웹 프로그래밍은 완전히 베이스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단점이라고 했던 것이 나에게서는 장점이 되었던 것 같다.

한 주에 한 번씩 단원이 끝나면 과제를 내주시고, 중간중간 두 번 홈페이지 제작을 과제로 내주시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두 번 친다. 사실 대학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수업을 처음 들었다.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하는 과제조차도 하기에 너무 어려웠다. 물론 수업내용과 ppt를 확인하면서 하면 한 3시간에서 4시간이면 끝나는 과제들이지만 교수님의 기준이 높으셔서 신경 쓸 것이 많은 과제들이었다. 그렇기에 교수님께서 항상 올려주시는 녹화 강의를 다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검색해가면서 배울 수 있었다. 사실 프로그래밍은 교수님의 수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나하나 소스를 찾아가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것이 현직에서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실습함으로써 복습을 철저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물론 객관적으로 편안한 수업은 아니다. 한 학기를 편하게 넘길 수 있는 수업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 수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특히 이공계 학생에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게 하는 교수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성적과 관계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기에 여러 가지 것을 코딩하고 찾아가면서 또한 이렇게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대학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님의 기준이 상당히 높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는 것도 역시 나에게서는 장점이었다. 편법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조금 더 정확하고, 간단한 코딩을 고민하게 되고, 이것은 이후에 확실한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사실 위에서 말하는 과제보다도 이 강의를 추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홈페이지 제작 과제 때문이다. 정적인 홈페이지를 6주 동안 제작하는 과제인데, 나는 중간고사를 3주 동안 나눠서 쳤기 때

문에 실질적인 시간은 2주가 조금 넘었다. 일반 과제에서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페이지를 제작하기 때문에 각 페이지 간의 유기성이 필요하지 않고 기능만 구현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홈페이지는 다르다. 교수님께서 제시해주신 설정 내에서 이 홈페이지를 사용할 만한 사람을 생각해가며 버튼을 만들어야 하고, 페이지 간의 링크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고서로 남겨서 제출해야 한다. 오히려 그렇기에 이 과제가 더 매력적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트는 전부 이러한 홈페이지의 형식을 띤다. 구분되어있는 페이지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단순한 코딩뿐만 아니라 UI부터 연결성까지 고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을 고민할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실제로 개발자로서 취업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민한 것들이 분명 다른 사람과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졸업 후에도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고안, 제안한 홈페이지 제작과제가 제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과제뿐만 아니라 수업도 좋았다. 아무래도 웹 프로그래밍은 html, CSS, JavaScript, PHP, Database까지 정말 다양한 수업을 듣게 되고, 각각의 내용 또한 방대해서 전부 수업으로 듣게 되면 복잡하고 곁가지로 쓸만한 것들이 많다. 그렇기에 교수님이 내용을 줄임으로써 빠르게 하나의 웹 홈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에게 맡겨 따로 배울 수 있게 하셨다. 오히려 그렇게 많은 것을 꼭꼭 눌러 담듯 배웠다면 그것이 더 부담이었을 것이고, 프로그래밍은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배워서 쓰고, 핵심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게 오히려 잘 맞았던 것 같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업은 실시간으로 강의하면서 항상 끝에는 녹화 강의를 올려주시는데 그것 역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아무래도 많은 내용을 핵심뿐이라고 할지언정 빠르게 수업을 나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을 녹화 강의로 보면서 복습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님 자체의 강의력도 좋다. 굉장히 토박토박 말씀하시기도 하고 말을 저시거나 하지도 않기 때문에 수업이 머릿속에 박히는 것처럼 들린다. 또한, 교수님께서 수업에 임하시는 태도가 학생인 내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열정적인 교수님이라 분명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

3. 결론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나는 고석훈 교수님의 웹 프로그래밍을 추천한다. 물론 굉장히 힘든 수업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말하는 빠센 수업이다. 수업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 분명 내가 찾아가며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도 그렇듯 모든 것을 먹여주는 교수님보다는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교수님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 수업을 들을 때, 수업을 단순히 학점만 채우는 용도가 아닌 정말 미래의 개발자를 희망한다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러 고민들은 현직에 나가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대학생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직에서는 실수하게 되면 그게 기업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하지만 학부 시절에 하는 실수는 안전하게 피드백해주는 교수님과 조교님이 계시고, 단순히 점수가 조금 깎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피드백은 현직에서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실제로 웹 쪽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조금 빠세고 힘들지만 안전한 고석훈 교수님의 웹 프로그래밍을 추천한다.

English 2, 모국어도 아닌 외국어로 마음을 나누다

English 2 (2021학년도 2학기) _ Todd Jobbit 교수

김서윤 _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20학번

“진정한 교육이란 생각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독일의 유명한 건축가가 남긴 말이다. 진정한 교육이란 생각하는 힘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방적으로 주입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나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소화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문장이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즉 ‘자주성’ 및 ‘독립성’을 기르는 데에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와 학생의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 또한, 자고로 대학은 우리가 성인으로서 마주하는 첫 배움의 기회인만큼, 나를 비롯한 많은 대학생들이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의미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지속해왔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러한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준 강의, 대학 교육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준 강의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늘 소개할 강의는 바로 국제학부 전공필수 강의 중 하나인 English 2이다. 토드 교수님의 지도 하에 매주 목요일 3시간가량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강의의 주제이자 학습목표는 Speech&Debate이다. 영어 연설 및 토론을 연습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며,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수업은 Speech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첫째 주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매주 연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커리큘럼을 밟아왔다. 연설은 총 4개의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연설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순서대로 Introduction speech(자기소개 연설), Review speech(인상 깊었던 장소나 물건, 경험 등에 대한 후기를 발표하는 연설), Informative speech(소개하고 싶었던 흥미로운 정보를 소개하는 연설), 그리고 Persuasive speech(논점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는 연설)로 구성되었다.

물론 서른 명이 남짓한 낯선 학생들 앞에서 10분 남짓한 발표를 거의 매주 진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토드 교수님께서서는 매주 학생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주시며 보다 효과적으로 연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쓰신다. 그 과제란 PRC로, 이는 Peer Review Check의 약자이다. 본격적인 연설을 진행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임의로 정해주신 소그룹의 학생들이 서로의 연설을 듣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준비 과정을 말한다. PRC에서 진행되는 피드백은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스무 개 남짓한 질문들을 통해 진행된다. 각 질문들은 연설이 thesis(중심 문장)을 담고 있는지,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한 details(세부 정보)들을 담고 있는지,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각 부분이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들이다. 각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리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상대방의 연설을 검토하고 피드백 하는 것을 넘어어서, 본인의 연설을 검토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혹시라도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PRC 과정에서 학생들은 또래 학생들과 연설 및 수업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이 점에서 PRC은 연설뿐만 아니라, 원활한 소통 능력과 비판적인 의견 수용 능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토드 교수님께서서는 원활한 PRC을 위해 매주 갖은 노력을 기울이신다. 3~4명의 학생들을 임의의

소그룹으로 짜지어주시고, 학생들이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시며, 무엇보다도 뒤처지거나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 모든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연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특히, 마지막 연설이었던 persuasive speech를 진행할 때는 'flipgrid'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하여 PRC를 진행하시는 등의 실험적인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다. flipgrid를 활용해 학생들은 줌으로 만나 즉흥적으로 피드백을 내리던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각자 2분 분량의 비디오를 찍어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새로운 방법을 접할 수 있었다. 교수님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후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어떤 방식의 피드백을 더 선호하는지를 확인하셨다. 다양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의의 대상이자 주인공인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향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PRC 과정을 통해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우선 나와 비슷한 처지와 또래의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눈치 보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설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토드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을 수시로 점검하시며 문제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단순히 연설뿐만 아니라 English 2 전반의 질과 분위기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셨다. 평소 일방적인 정보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었던 나에게 토드 교수님의 학생 중심 수업 방식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배워가는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는 개개인의 영어 말하기 실력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한 '진정한 교육의 의의'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도 효과적인 도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토드 교수님께서서는 본격적인 연설 이후, 메일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최종 피드백을 주셨다. 교수님의 진심어린 피드백은 보다 성공적인 다음 연설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항상 완벽해야 하며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이 긴장해서 말을 더듬거나 문법적인 실수를 범해도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미소 띤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연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다. 교수님의 따뜻한 인간성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또 하루는 교수님께서 주신 피드백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메일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서는 다음 수업이 끝난 후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주셨다. 교수님께서서는 침착한 태도로 끝까지 나의 말을 경청해주셨고, 진솔한 답변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오해 없이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셨다. 그 후, 십 몇 분간의 대화 끝에 교수님께서서는 의견을 받아들여 본인의 피드백을 수정해주셨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본인에게 메일을 보내주라고 부탁하시기도 했다. 원하는 바를 당당하고 솔직하게 요구하고자 했던 학생 한 명의 용기와 솔직함을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는 느낌을 받은 순간이었다.

또, 하루는 외할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셔서 그 주에 예정된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다. 교수님께 상황을 말씀드리자 교수님께서서는 발표 순서를 뒤로 미루어주셨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 편안한 상태에서 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다. 이에 그치지 않고, 며칠 후 교수님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다. 교수님께서서는 자신도 어린 나이에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슬픔을 애도해주시고 공감해주셨다. 교수님으로부터 느낀 따뜻한 마음과 따스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넘어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순간만큼은 교수 대 학생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유대와 공감이 오고간 순간이었다. 오랜 시간, 감사한 기억으로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

가끔은 모국어인 한국어로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 따라서 모국어

가 아닌 영어라는 외국어로 나의 의견을 상대에게 관철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완벽하지 않은 외국어 실력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오신 교수님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복잡한 일이다. 국적이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넘어서 문화와 생활양식이 다르고, 그에 기인한 사고방식 또한 다르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적 및 문화적 차이로부터 오는 이질감을 단숨에 날려버리듯, 토드 교수님께서서는 학생 개개인을 향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셨다. 그 결과, 나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은 토드 교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애정하며 교수님의 수업을 향한 깊은 열정과 충성심을 가지고 매주 수업에 임하고 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가 비슷한 배움의 목적 및 의의를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을 성사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 시되어야 할 것은 교수님과 학생 간의 열린 소통일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교수님에 대한 믿음과 존경을, 그리고 교수님은 학생들에 대한 공평한 시선 및 배려를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한다. 나는 이 과정의 중요성을 토드 교수님의 English 2를 통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본 에세이를 통해 나는 솔직한 경험과 그에 대한 생각이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욱 구체적으로, 교수님들께는 더 좋은 강의를 위한 동기부여가,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진정한 배움의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뿐만 아니라, 글을 읽는 모든 분이 단순히 '좋은 강의란 무엇인가?' 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넘어서 '진정한 교육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로 대표되는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소개한 독일 건축가의 명언을 다시 언급하며 에세이를 마무리할까 한다.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희망하는 문장이다. ***"진정한 교육이란 생각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

이베로아메리카지성사(2) (2021년 2학기) _ 김선이 교수

김채현 _ 통번역대학 스페인어통번역학과 19학번

‘지성사’라는 이름부터 낯선 이 과목은 총 1년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1학기에는 이베리아 반도를 2학기에는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배운다. 이번 2학기 수강한 과목의 부제는 ‘라틴아메리카를 라틴아메리카로부터 사유하기’ 인데 이것은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모든 것을 완벽히 설명한다. 지정학적 위치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역사를 그들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며, 나를 끝없이 사유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수업의 구성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대표적인 사상이 및 사회 흐름을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져있다. 수업 시작과 함께 해당 인물의 성장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그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해에 태어났는지, 그가 태어났을 당시 국가의 내외적 상황은 어떠한지를 비롯하여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국한되지 않은 전세계적 국제 정세를 배운다. 그 후 그의 사상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되는데 많은 경우 당시 사회문화적 사조를 관통하고 반영한다.

앞서 역사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시선으로 재해석을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그보다 역사를 객관화 된 시선으로 바르게 해석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 재(再)해석이란 ‘옛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해석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지금껏 우리는 역사를 주체적으로 해석한 적도 없을 뿐더러 이미 타자에 의해 해석된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습을 해왔기 때문이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우들은 그 사상가가 왜 그러한 철학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와 같은 철학이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는 왜 발전하지 못했는지 또는 과거 한국 역사와 접목하여 폭넓고 자유롭게 질문하며 토론한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깨달은 바가 많기도 하지만 학우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듣노라면 여러 지식인이 한데 모여 학술적 토론을 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자칫 딱딱하고 지루해 보일지도 모르는 주제들이지만 정작 수업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 것에는 교수님의 강의력이 한 몫, 아니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베로아메리카 지성사’는 나의 한 주 시간표에서 가장 마지막 수업이었기에 일주일간의 피로가 몰아 닳치고, 연이은 밤샘으로 체력적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듣게 되었는데도 이토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수업을 만나본 적이 없다. 3시간 동안 사회, 정치, 역사, 철학을 배우며 교수님의 설명이 너무 재미있던 나머지 웃다 못해 울다 나온 기억도 있다. 교수님께서 위 내용들을 날카롭고 명철하게 그리고 위트 있게 분석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그저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풍자적이고 유머 있는 분석 이면에 깊이 생각해야 할 무언가를 던져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수님은 해당 주제에 관한 이론적 설명이 끝난 후에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으로 비롯된 문제점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들은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신다. 그리고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를 포함한 주위의 학우들은 쉬는 시간마저 허투루 활용하지 않고 해상 사상가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거나 관련 도서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그 사이에서 교수님도 쉬지 않으시고 그 토론의 중심을 잡아 주신다. 그렇게 우리 모두 점차 사유하는 사람으로 변모해갔다. 그 누구의 의견도 해석도 틀렸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다만 의견의 다양성의

로 존중해 주셨을 뿐이다.

어느 날은 '엔리케 두셀'이라는 사상가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는 아메리카 대륙의 이름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왜 아메리카 대륙은 아메리카로 명명 되었는가에 관한 이론을 펼친 인물이었다. 그가 던진 질문은 명명케 된 계기를 묻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이나 당시나 아메리카 대륙의 이름이 붙여진 까닭은 자명하게 알려져 있다. 다만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한 대륙의 이름을 명명할 때에 그 대륙과 전혀 연이 없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것과 이에 비롯된 대륙 거주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들이다.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은 콜롬버스에 의해 발견 되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 실상은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라고 말한다. 해당 대륙 원주민에게 정복자들이 행한 것이 폭력과 착취와 수탈이라면 그것을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롯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발명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그저 말장난으로 보일 지 모르겠지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럽의 구체제를 탈피하고 주체적 발전을 이룬 앵글로색슨족 즉 북아메리카 대륙을 이루고 있는 이들과는 반대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그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일부는 자신들이 유럽인이라는 자부심에 여전히 젖어있다. 이러한 자발적 식민성은 라틴 국가들이 그들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종속을 끊어 내지도, 끊어낼 시도조차 하지도 않는 순종적인 개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게 했다. 엔리케 두셀의 이론을 통하여 교수님께서서는 아시아 대륙과 라틴 아메리카 대륙이 공통된 식민의 역사를 가짐에도 현재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까닭은 옥시덴탈리즘과 오리엔탈리즘, 그 이분법적인 개념을 받아들이고 '동양적인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사고가 이루어졌으며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국가와 국가 차원 이전에 개인적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였다. 그의 사상에 관한 수업이 끝나고서 정체성에 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반면 그것이 가진 한편으론 위험한 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한 사람과 한 사회와 한 국가가 정체성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을 잃어버릴 때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현실을 보지 못하고 안주하려는 태도는 주인과 개의 관계와 같이 종속의 결말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강 절반 정도가 지나는 문화주간에는 그동안 배운 내용에 관련한 도서 및 영화를 선택하고 감상문을 제출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미 수업시간에 사상가와 그의 성장배경, 철학 및 저서 등을 더러 다루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넓었다. 다만 도저히 무얼 골라야 할지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 한참을 고민한 기억이 있다. 어찌되었든 관련 도서는 모두 찾아 읽을 심산이었지만 오랜 고민 끝에 내가 선택한 도서는 호세 마리아떼기 의 저서 'Siete Ensayos de Interpretación de la Realidad Peruana' 였다. 한국어는 '페루의 현실 진단을 위한 일곱 편의 평론'인데 한국어로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아 스페인어 원서와 영어 번역본을 함께 읽어야 했다. 위 도서에서 작가는 남다른 식견으로 페루의 사회문화적 조류를 파악하고 그가 지닌 문제점과 그것이 비롯된 원인을 꼬집어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해결방안은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형식화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마당에 남의 나라 역사를 밤낮 가리지 않고 읽을 수 있던 까닭은 1920년대 페루의 상황을 묘사하는 작가의 평론이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과 상당 부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타국의 역사를 관찰하면서도 내가 속한 국가의 사회를 재조명하게 되는데, 정작 자국의 역사는 자세히 들여다 본 적도 없으며 늘 관심 밖의 영역에 두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수업을 마치고 대중교통에서 꼬박 세 시간을 보내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긴 하교길 내내 벽

찬 마음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수업 내용을 수차례 곱씹으며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을 가졌다는 마음이 나를 설레게 만들었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키며 그동안 내 성숙하지 못한 자아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히 판단해 왔는가에 한참동안 부끄럼을 느껴야 했다. 반면 이제 그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스스로를 발견하노라면 이보다 행복할 수 없었다. 새 아침을 맞으며 나는 또 다른 시선으로 가깝게는 내 주위를, 멀게는 세상을 바라본다. 그동안 이해할 수 없던 많은 것들이 이해되었고, 그들 중 어떤 것들은 내가 이해해야 할 것들이 아닌 인정해야 할 것들이었다. 변화가 필요하지만 눈 감아왔던 부조리와 부당함에 자발적인 순응 대신 필요한 것은 얻고자, 바꾸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였으며 더이상 그것들에 눈감고 있지 않겠다 목표로 삶의 방향성에 있어 거대한 터닝포인트를 지나게 되었다. 이러한 정신적 성숙이 일 년 동안 나를 한층 기쁘게 만들었다. 오랜 시간 습관되어 자리잡은 일차원적 사고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무의식 중에 평면적 사고에 잠긴 내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것은 그것을 깨닫고 다시 사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난 증거는 변해가는 내 모습이 나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하는데, 좋은 수업이라고 다를 것이 있겠는가?

아직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방적인 해석에 기반한 아주 적은 정보들 만이 공유될 뿐이다. 사람이 어떠한 사물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옆에서도 위에서 아래에서도 바라보아야한다. 작은 사물 하나 설명하는 데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역사와 현실을 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행위는 자발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내버리고 타자의 것마저 짓밟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이것이 교육으로 이어진다면 현 세대의 무지하고 편협한 사고를 자녀 세대에 고스란히 이식하는 무책임한 행위 이상으로 해석될 수 없다.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일정 국가들의 역사에 눈 감고 편식적인 접근에 이르는 것에 머물지 않고 현 상황과 더불어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인식의 오류마저 받아들일 것이라는 암묵적 동의이다. 20대의 눈은 그래서 안된다. 우리 20대는 너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취적인 태도로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 싸울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할 것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문을 지나며 모든 사람들은 공통된 문구를 본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가, 진정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위 질문에 알 수 없는 막막함을 느꼈다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면 더이상 주저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우리에게 ‘이베로아메리카 지성사’가 있다. ‘이베로아메리카 지성사’는 외대를 대표하는 이슬로건에 그 무엇보다 어울리는 강의라고 확신한다.

깊이 그리고 함께 아는 것의 힘

영제국과 영연방 (2021년 2학기) _ 하정연 교수

노유은 _ 동유럽대학 루마니아어과 17학번

4학년 2학기, 대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며 교수님들의 지식을 날로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대학생이 아니라면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야 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러나 대학생이라면 눈앞에 전문가들이 있고, 난 자유롭게 그들에게 질문하여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에 다니면서 그것들을 잊고 사는 것 같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전문가라는 것과 언제든지 그들에게 질문하면 괜찮은 답이 나온다는 점을 말이다.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질문하는 것이 내게 어떤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지를 알게 되었다.

하정연 교수님의 영제국과 영연방 수업은 영연방의 창의산업의 발달과 현황을 학습하고 성공적인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창의산업을 국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에서의 창의산업을 설명하는 각종 정부 및 기관문서를 훑어보며, 영제국과 영연방을 역사적 맥락에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그것들을 살펴보고 꼼꼼히 뜯어보고 탐구한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수님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흥미롭다고 느껴지는 주제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주제로 깊이 있게 조사하면서 그것을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유한다. 그렇기에 이 수업은 교수님의 지식을 일방향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강의와 학생들이 양방향적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발표와 소규모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대개 교수님께서 다음 수업의 주제와 연관된 과제를 내주시면 학생들은 자유롭게 조사하고 간단한 레포트를 작성한다. 여기서 자유로운 조사란 이런 것이다. 주제를 영국박물관이라고 하면, 학생들 개인이 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클릭하며 탐색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개인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찾아내고 그 주제에 관해 '디깅'한다. 그리고 한 페이지 분량의 레포트를 간단히 작성해서 제출하면 교수님께서 그것들을 전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와 맥락이 통하는 것들을 선별하시면 학생들이 발표를 준비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디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덕질'과도 일맥상 통하는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혹은 끌리는 분야를 깊이 조사하고 찾아보며 만족감과 행복함을 느끼는 부분에서 결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영제국과 영연방 수업은 학생 스스로 계속 '디깅'하게 돕는다. 한 가지 주제를 던져주면 학생들은 그것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자신의 흥미에 맞는 것을 찾고 깊이 있게 디깅한다. 일례로 나는 이 수업을 통해 디깅을 하면서 모르고 있던 나의 관심사를 알게 되었다. Victoria and Albert Museum을 주제로 조사할 때는 박물관 측에서 예술가들을 위해 제공하는 Residency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꼈고, 영국인 건축가들을 주제로 조사할 때는 Richard Rogers의 건물이 건축관련 종사자들에게 학습,개발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Residency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꼈다. 사람들에게 괜찮은 주거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들이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리고 있었던 것이다. 디깅 없이, 주체적으로 탐구할 기회 없이는 알지 못했을 부분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만의 흥미와 취미가 중요해지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방식의 수업은 나만의 무기를 갖추게 도와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디깅’과 더불어 공유는 이 수업에서 중요한 요소다. 자신이 디깅한 것을 타인과 공유하는 발표, 학생간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 토론과 수업 중간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공유해달라 요청하시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학생들은 과제로 조사해온 주제에 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각자의 주제에 관해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또한 교수님은 궁금한 점 혹은 내용상 흥미로웠던 점을 말할 시간을 주신다. 개인마다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천차만별이며 같은 주제를 선택했다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은 전부 다르기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특히 요즘 내가 보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볼 수 있는 SNS를 통해서 우리는 따로 품을 들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쉽사리 근시안적으로 보게 된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이 줄어든 세상에서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새로운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경청하는 시간이 소중한데 이 수업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왜 그 주제에 흥미를 느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지 등등을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는 수업이다.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다양성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연대하고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몇 주 전 수업이 끝나고 그 날의 수업이 너무 좋아서 참지 못하고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드렸다. 수업 내용이 너무 좋았고 관련 분야를 더 공부해보고 싶은데 추천해주실 수 있는 책이 있냐고 여쭙봤다. 교수님께서서는 빠르게 그리고 친절히 답변해 주셨다. 이 수업을 통해서 나는 수업 내용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내가 관심있는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재미를 체험했으며, 아는 것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알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에 와서 학점 따기에 좋은 수업을 찾아 듣는다. 최대한 발표와 과제가 없고 교수님의 강의로만 진행되는, 그리고 웬만하면 시험도 한번만 보는 수업을 찾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대학이라는 공간에 있다. 질문하고, 한발 더 나아가 나만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것이다. 수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는 어려움과 고단함, 가끔은 이것이 과연 내 취업에 뭐가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허무함을 무릅쓰고라도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실패로 남더라도 다시금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는 대학에 있다. 영제국과 영연방 수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안 해보면 어디서 해볼 수 있을까. 지금, 여기가 최고의 시기이자 최적의 공간이다. 강의 계획서만 보고 너무 어렵겠다고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바로 지금이야!

문장의 발견, 번역을 배우다

스페인어문학번역 (2021학년도 1학기) _ 이은성 교수

송채린 _ 통번역대학 스페인어통번역학과 19학번

이은성 교수님을 처음 본 것은 1학년 때였다. 나는 그 때 스페인어 작문 수업을 수강했는데, 늘 방글방글 웃는 낯으로 우리를 맞아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난다. 올해도 결국 교수님을 뵈지 못하고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스페인어문학번역 수업은 전공선택과목으로, 나에게서는 수강신청 1순위였다. 일단 나는 이야기를, 문학을 좋아한다. 그냥 ‘스페인어번역’ 수업이었으면 이 수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딱딱한 내용의 스페인어를 단순히 읽고 쓰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된 문학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문학과 함께 하는 수업이라면 어려운 전공 수업이 재밌게 느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또한 결과물이 우리말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스페인어 작문은 영 빵이지만 한국어는 꽤 하나까 괜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국어로 하면 탁 들어맞는 표현들을 스페인어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그 반대는 쉽지 않을까-하는 다소 오만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수업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녹화 강의로 진행되었다. 수업 전에 학생들이 주어진 양의 문장들을 번역해서 제출하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우리가 번역한 문장을 하나하나 읽고 교정해주는 방식이었다. 수업 교재는 만화책이었는데, 문장도 비교적 짧고 대화체가 주이기 때문에 보다 쉽고 재밌게 번역할 수 있었다. 또한 만화는 그림이라는 매체와 함께 표현되는 문학 작품이기 직관적으로 문맥을 파악하기 수월하였다. 특히 번역을 처음 접하는 나에게 정말 적절한 학습 도구가 아니었나 싶다. 우리는 한 학기 동안 두 가지 만화책을 보았다. 교수님께서 이번 주에 번역할 만화책의 부분을 이클래스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면 학생들은 해당 부분을 번역해서 업로드하였다. 만화책의 텍스트도 엑셀 파일에 따로 정리해서 학생들이 번역한 문장을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제출 형식에 있어서도 부수적인 헛갈림 없이 과제를 진행할 수 있었다. 문학 텍스트의 양은 매번 적절했으며, 과제를 할 시간도 충분히 주셨다. 과제는 매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나눠 주마다 번갈아 가며 진행되었다. 해당 주에 과제가 없는 학생들도 원한다면 과제 제출하여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가능하였다. 대면 강의를 아니었지만 수업 진행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었고, 그 때문에 교수님 혼자 이끌어가는 수업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강했다. 이론 중심이 아닌 실천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또한 매주 각자가 번역한 문장을 이름은 가린 채 화면에 띄워 같이 살펴보았는데, 개인에 맞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수강한 학생들이 많은 만큼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아 그만큼 하나의 문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다룬 만화는 미스터리 추리물이었다. 스스로 움직이는 한 ‘손’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추리물을 좋아하는 본인은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 번역했다. 해석할수록 다음 내용이 궁금해졌기 때문에 즐겁게 번역을 했던 것 같다. 교수님께서서는 번역가는 원문의 작가를 존중하며 동시에 책을 읽을 독자들을 고려해야하는, 중간자 역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업을 진행할수록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독자들은 번역가의 글을 통해서 작품을 접한다. 번역가가 문학 작품을 통해 느끼는 감정이 글에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원래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되 독자들에게 어색함없이 읽힐 수 있도록 번역가가 최대한 작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첫 번째 만화에서는 등장인물들이 공작, 귀족 부인 등이라 경어체로 번역하였고 두 번째로

다른 만화는 스페인 전쟁의 두 남녀 주인공의 삶을 다룬 만화였는데, 인물 사이의 관계, 감정에 따라 또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었다.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인물들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말투 하나까지 고민하고 번역한다는 것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었다. 등장인물들의 고유한 캐릭터를 내 손으로 구축해 나가는 느낌은 문학작품 번역이라서 느낄 수 있었던 재미였다고 생각한다. 작가가 낡은 인물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번역가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문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작품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글로 표현하는지가 또 중요한 문제이다.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은 또 한 가지는 여태껏 스페인어 글을 읽고 '번역'이라고 생각하며 해 왔던 것들은 그저 '해석'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뜻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연스럽게, 보다 완벽한, 문학적으로도 손색없는 문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문학번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직역하면 "한기가 내 몸을 타고 흘렀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은 "오한이 들었다", "소름이 돋았다.",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등등 여러가지 문장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일단 단어들의 뜻을 찾고 연결하여 해석한 다음에 그 문장을 이리 재고 저리 재가면서 여러 번 읽고 고민해야 더 좋은 문장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글쓴이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은 채 가장 의미전달을 자연스럽게 하는 문장을 만드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처음에는 한 문장을 가지고 이런 저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쉽게 되지는 않았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뜻 중 하나에 매몰되어 더 나아가지 못하거나, 어느 정도까지 해석의 변화가 허용되는지 쉽게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매 수업시간마다 다른 친구들이 번역한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해보고 교수님이 제시하는 예시 문장에서 강조되는 의미와 문맥을 읽는 연습을 하다 보니 '번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행위에 스스로가 점차 익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익명성을 가진 내 문장이 교수님께 칭찬이라도 받을 때에는 노트북 화면에다 대고 자축의 박수를 치기도 했다.

수업의 목표는 단순하다. 번역 능력을 습득하고 그 과정에서 스페인어, 한국어 두 언어의 해석하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번역이 그냥 언어만 바꾸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스페인어를 해석한 후 이를 다시 한국어로 옮겨야 한다. 따라서 스페인어 강독, 그리고 한국어 작문을 자연스럽게 함께 공부할 수 있었다. 특히 나는 한국어 공부를 다시하는 기분이 들었다. 어색하지 않도록 문장을 다듬다 보니 여러 접속사들 중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지, 어미는 어떻게 종결하는 것이 더 나은지, 우리에게 더 자연스럽게 읽히는 숙어나 표현에는 무엇일지 고민하며 번역을 했다. 그 안에 담긴 문맥상 의미, 진짜 중요한 알맹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번역한 문장을 여러 번 읽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 과정이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해당 언어만 잘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언어에 골고루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교수님께서도 수업시간에 한 문장에 대한 여러 번역의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문장에서 쓰인 해당 단어나 표현이 다른 문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예시를 보여주셨다. 따라서 다양한 스페인어 어휘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외국어 고유명사는 한국어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 독자에 대한 배려라는 것도 이 수업을 통해 배웠다. 수업 시간 중 간간히 들려주시는 번역이라는 일에 대한 이야기들은 혹시 모를 번역가의 삶을 상상하게 만들기도 했다.

스페인어 만화책은 말풍선 밖에 있는 독백체는 큰 따옴표로 구분되어 있다. 나는 초반에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그녀와 같은 인칭 대명사가 등장인물 중 누구를 나타내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단순한 해석에도 서투른 상태였다. 사전에 딱딱하게만 나와 있는 단어의 뜻을 문장 속에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도 잘 몰랐다. 그렇지만 수업시간마다 연습을 거듭하면서 스페인어를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고, 번역하기위해 문법책을 뒤적이고 분석하면서 문장 하나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가게 된 것 같다. 문장을 곱씹다가 어느 순간 더 좋은 표현이 번뜩

일 때의 쾌감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었다.

21년 1학기는 번역이라는 작업에 매력이 여실히 빠졌던 한 학기였다.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친구들이 저마다 쓴 각자의 해석을 보면서 나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었고, 문장을 다듬어간 서로의 노력들이 보이기에 그게 또 나의 동기부여가 되었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한 학기가 지났지만, 수업시간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써 주셔서 감사했다. 수업 시간은 늘 일정했고, 업로드 시간도 늘 지켜 주셨기 때문에 비대면이라 혼란스러운 시간표 속에서도 계획적으로 수업을 수강할 수 있었다.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 모두 번역 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제껏 연습한 것을 바탕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시간에 쫓기는 시험이 아니라 고민하고 고민해서 최선의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교수님께 배운 대로 번역할 수 있었다. 수업 시간 상 교수님께서 모든 학생들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셨지만, 학생들이 번역한 문장 중 최대한 서로 겹치지 않는 것들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매 수업시간이 만족스러웠다. 전공 수업은 늘 나에게 어렵고 수업 자체가 하나의 과제 같았다. 압박감 속에 암기를 하며 밤을 새는 날들이 많았는데, 스페인어문학번역 수업은 내가 그려가는 수업이었다. 수업을 즐길 수 있어서 행복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번역의 재미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문장을 발견했고, 앞으로도 나만의 문장을 써갈 것이다.

로스쿨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우에게 필수적인 학부 강의

채권의 발생과 실현 (2021학년도 2학기) _ 신지혜 교수

오희찬 _ 영어대학 ELLT학과 19학번

국가리더 융합전공 3학년 강의로 개설된 채권의 발생과 실현 강의는 2021학년도 2학기에 신지혜 교수님이 맡아서 진행하셨습니다. 강의의 내용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채권총론의 기본 이론들을 학습하고 사례에의 적용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학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해 강의와 같은 대형 강의들은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뤄지도록 행정이 시행되어 대면 수업이 불가하였으나 오히려 사례에의 적용에서 교수님의 판서와 사실관계 구조도 등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여 교수님의 수업이 대면수업의 강의들과 비교하였을 때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다는 등의 문제는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수업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채권의 발생과 실현은 송덕수 교수님의 기본민법 교재를 기준으로 1장 서론, 2장 채권의 발생, 3장 채권의 목적, 4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5장 책임재산의 보전, 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8장 채권의 소멸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8장의 채권의 소멸까지를 다루고 그 이후부터는 나머지 5,6,7장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법학을 형법이든 민법이든 어떤식으로든 접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론이 으레 그렇듯 추상적인 개념들을 학습해야 하는 터라 처음 공부할 때는 논리구성이 처음에는 막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지도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고 학부생 수준에 맞게 필요한 내용들 이상으로 난해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으며 많은 사례 예시들을 넣어 해설을 해주시기 때문에 공부할 때 논리구조와 이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법적 개념 등을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특히 교수님의 수업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적절한 실무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의 조화인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사용되지 않는 개념의 분리 등은 방대한 양의 채권총론을 학습하는데 있어 파트 별 완급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무에서의 지식은 적절한 흥미유도로 수업 중간에 적당한 리프레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가장 많은 학우분들이 궁금해할 평가에 관해서도 교수님의 수업이 깔끔하게 진행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고사는 대면 수업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OX 50제와 사례형 1문제로 시험이 1시간동안 진행되었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시험을 치러 시험때마다 시간에 항상 촉박하던 저에게도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OX문제는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수업에서 정확히 언급된 부분만 출제되었으며 평소 교수님이 짚어 주시는 조문들을 차례대로 충분히 정리하고 교과서를 놓친 부분없이 큰 즐거움을 위주로 정확하게 이해하였다면 헛갈려서 오답을 기재할지 언정 문제가 원하는 답을 몰라서 틀릴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엽적인 것을 묻는 내용은 없어 학부생의 수준에서 난해한 정도의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학부생이다 보니 사례형의 작성에 있어서는 접근 방법이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법학답안

에 중요한 목차를 정리해서 기재하는 것에 난점을 겪어 도입부 등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고 그 이후에도 논리적인 체계를 가진 답안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논점과 키워드를 짚어서 답안을 서술했고 체계와 형식은 엉망이었지만 내용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서술식으로 사례에 적용하여 제대로 기술하였기에 모범답안으로 뽑힐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부족함이 많은 답안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시험이 끝난 직후 사례형 해설 풀이를 해 주시며 완전히 모범적인 답안이라고 볼 수 있는 답안지는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신 후 학생들이 놓친 부분, 작성해서는 안 될 부분, 답안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시금 점검해 주셔서 기말고사 대비를 할 때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열정적으로 이끄신 교수님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교류를 활발히 해준 학우분들이 있었기에 어려운 채권법총론 부분을 학부생 수준에서 어렵지 않게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강의 준비는 막히는 부분 없이 일목요연하게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느낄 수 있었고 학우분들도 모르는 부분, 수업에서 헛갈리는 부분 등을 의견교류를 통해 적절히 타 학우들과 교류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일조했습니다. 이 수기를 쓰는 시점이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인 터라 아직 공부할 채권총론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특히 채권자대위권과 같은 난해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채권총론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학부생 수준에서 선제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법학강의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과목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3법 헌,민,형 중에서도 실무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목인 민법 그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인 채권법 파트를 경험해봐야 본인의 법학적성을 미리 시험해보고 진로를 설계하는데 까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기를 마치며 한 학기 강의를 함께한 교수님과 학우분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학기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에 참여해 좋은 결과를 모두가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문화와텍스트(2) (2020학년도 2학기) _ 김수연 교수

이가연 _ 영어대학 영미문학·문화학과 20학번

저는 김수연 교수님의 '문화와 텍스트' 강의를 다른 학생들에게 꼭 추천하고자 합니다. 문학에 대한 강의가 조금 더 많은 영미문학문화학과에서 '영미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여러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 데에 재미를 느꼈었던 저는,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영화를 넘어서서 한 발짝 더 영화를 깊게 느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영화사와 관련된 책들을 빌려 보거나, 영화 잡지를 탐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의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음만 열정에 가득 차 있고, 실력으로는 완전히 초보인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원래의 백그라운드 지식이 부족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나름 백방으로 여러 책들을 찾아보았으나, 제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어렵게 구한 책들은 책의 서문만 열심히 읽다 보니, 뜨거웠던 영화에 대한 열정도 차츰 사그라들었고, 그 이후로는 단순한 재미로만 영화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영화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잊고 지내다가, 대학에 들어온 후 듣게 된 것이 김수연 교수님의 '문화와 텍스트(2)' 강의입니다. 교수님의 강의계획서에 수업에서 전반적인 할리우드 영화사를 다루시겠다고 써 두신 것을 보고, 고등학교 때 영화와 관련된 책들을 탐독하던 시기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문화와 텍스트(2)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교수님께서 강의계획서에 써 주신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할리우드 영화가 시작되고 거대 영화사들이 설립되고 있었던 1920년대의 할리우드에 대한 배경지식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수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기 전, 세 명씩 팀을 꾸린 학우분들이 20~30분가량의 발표를 진행합니다. 발표 내용은 영화와 관련한 단어 설명, 영화 속의 컷 편집 기술이나 상징에 대한 해석, 영화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됩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 모두가 발표를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발표를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발표가 끝나고 나면, 교수님께서 영화가 개봉했던 시기에 미국 역사, 문화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누아르 영화의 시대인 1940년대의 영화 <카사블랑카>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날에는, 같은 시기에 개봉했던 영화인 오손 웰즈의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 시기에 미국의 대형 스튜디오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식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만족했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기본적인 영화 단어와, 영화사 전반의 기초적인 흐름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업을 수강하며 만족했던 것은, 수업을 다 듣고 난 후에 영화 유튜버들이 하곤 하는 영화 분석을 혼자서도 어렵듯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준비하며 영화의 자료를 찾아보거나, 다른 학우분들의 발표를 듣게 되면서 영화 분석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포레스트 검프> 속 등장하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눈에 보인다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속 등장하는 남부의 화려한 전원생활에 대해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뿐만이 아닙니다. 영상을 어떻게 잘라 붙여 어떤 방식으로 컷을 넘기는지, 그 속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원시인들이 뼈를 허공에 던지고, 그것이 우주선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치컷'이라고 하고, '기술'이라는 주제를 담아내기 위해 그러한 방식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이것들 모두 문화와 텍스트(2) 수업을 수강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수업의 모든 과정을 학습하고 난 뒤라면, 그간 배웠던 영화 단어에 대한 기초 지식들과 영화 역사의 흐름을 토대로 유튜브버들이 하곤 하는 영화 분석을 다른 영화에도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만족했던 점은 '한번 봐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미루고 있었던 고전영화들을 다른 학생들과 감상을 나누면서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9), <카사블랑카>(1942), <사랑은 비를 타고>(1952), <수색자들>(1956), <플래툰>(1987) 등이 문화와 텍스트 수업을 듣게 된다면 감상하게 될 영화들입니다. 오늘날 스펙타클들이 가득한 할리우드 상업영화와 수업 시간에 감상해야 하는 영화를 비교해보면 따분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분명 고전영화에는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 바로 문화와 텍스트 수업입니다. 혼자서 이 영화들을 보았었다라면 몰랐을 그 시대의 이슈들을 함께 배우며 할리우드의 시대적 분위기를 함께 알 수 있었던 것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영화의 도입부에 나오는 20세기 폭스와 서치라이트를 구분할 수 있고, 마틴 스코세이지의 영화 <휴고>에 나오는 과거 영화 산업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워너브라더스', '워너미디어'처럼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왜 영화마다 이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같이 영화에 대해서 사소하게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수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와 텍스트(2) 수업 이후 현재 저는 김수연 교수님의 다른 강의 또한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과 더불어 김수연 교수님의 정보전달력과 강의력 또한 수강자로서 매우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지루하지 않게 꼭 필요한 정보들만 골라서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늦은 시간의 3시간 수업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영미문학문화학과 혹은 영어대 학생분들에게, 영미문화의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할리우드 영화사의 틀을 배우기 위해 문화와 텍스트 수업을 꼭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광고란 무엇인가?

광고매체론 (2021학년도 1학기) _ 정윤재 교수

이성도 _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광고·PR·브랜딩전공 17학번

광고는 참으로 어려우면서 흥미로운 학문이다. 단순히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감정적 소구를 도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수많은 크리에이티브 뒤에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지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논리가 존재한다. 이성적 판단을 기초로 감성적 행위를 시도하여 소비자를 설득시키는 학문. 마치 광고는 동양 음양의 조화를 이론을 넘어 자본주의 사회에 접목시키기 위한 하나의 실전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4년의 학부 과정이 이러한 음양의 조화를 고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러 광고 수업의 주 커리큘럼은 소비자 행동과 판단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이를 접목하기 위한 팀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즉, 대부분의 광고 강좌는 '어떠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어떻게 소비자를 설득시킬 것인가'라는 이론과 크리에이티브에 집중한다. 하지만 2021학년도 1학기 광고매체론 수업은 위와 같은 커리큘럼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광고를 바라본다.

'어떻게 광고를 집행하여야 하는가?'

'광고매체론'은 '프로세스'에 집중한다. 즉, 수업은 도입부부터 광고라는 분야는 단순히 감정적 호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된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어떠한 지역에 위치한 어떤 직업의, 소득의, 연령대의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 집단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근거는 무엇인가?' '광고매체론'은 어떻게 광고를 집행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수강생들에게 논리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그러한 이유는 단순히 말로써 그럴싸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수업 시간 내 배운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숫자로 공정하게 평가하게끔 유도해야만 한다.

'객관성을 추구하다'

여러 광고 수업 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는 일종의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과연 내가 머리를 싸매어 기획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일까? 단순히 A+, B+ 이라는 수강생 내 상대 평가가 아닌, 객관적으로 이러한 기획이 소비자에게 유효한가에 대한 갈증이었다. 물론 '광고매체론' 수업의 프로젝트도 정확하게 시장성을 평가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러한 시장성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 학기 동안 학습하며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도 이러한 수치화에서 기인했다. 광고라는 학문은 자칫 잘못하면 단순히 가정에 근거하여 열린 결말에 '이렇게 하면 이들의 이목을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상적인 의문에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광고매체론'은 특정 주제를 선정한 뒤 관련 데이터를 끊임없이 제공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업 시간 내 학습한 통계 기법을 접목하여 수치화한다. 물론 이러한 숫자로 모든 것을 판가름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유효성을 유추할 수는 있다.

'Grading Criteria for Media Plan'

'광고매체론' 수업의 묘미는 바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있는 개인 프로젝트이다. 교수님께

서 특정 브랜드를 지정해 주시며 그와 관련한 수많은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다. 이는 지금껏 배워 온 통계 기법을 통해 어떠한 분석집단을 설정하여 어떠한 매체를 이용하며 얼마의 예산을 지출하여 광고를 집행하는지 등 지금껏 배워왔던 수업의 모든 내용을 적용해볼 기회다. 물론 이러한 개인 프로젝트는 여타 수업 때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평가 형태다. 하지만 '광고매체론' 수업의 개인 프로젝트는 '광고매체론'만의 독특한 방식을 기초로 한다. 그것은 바로 'Grading Criteria for Media Plan'(이하 채점표). 앞서 언급하였듯 '광고매체론'의 수업이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객관성'과 '프로세스'이다. 이 개인 프로젝트도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구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채점표다. 단순히 분량, 수업 내 학습한 이론, 글의 완성도만을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며 그에 따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요소들이 제시된다. 단순히 맹목적으로 '글이 좋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추상적인 과제가 아닌, 제시된 구성요소와 과정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채점표는 단순히 평가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광고매체를 선정하고 기획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북의 형태를 띤다. 사실 냉정히 팀,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무리 교수님과 잦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과연 맞는 방향으로 가는지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채점표'는 그러한 의문을 어느 정도 축소시켜주며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광고매체론' 그리고 성취감

개인 프로젝트를 하기 전 수업을 들었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다. 워낙 어려운 프로젝트였고 채점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과 난도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할 때였다. 선배들도 딱히 많은 말을 해줄 것이 없다고 하며 단지 '반드시 일찍 시작해야만 제시간에 마칠 수 있다'라는 조언을 건넸다. 누구는 한 달을 투자해 여유롭게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누구는 그 절반인 2주를 밤을 꼬박 새우며 완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각자 투자한 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거나 많은 양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하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막무가내로 많은 양의 레포트 혹은 프로젝트는 개인에게 부담만 줄 뿐,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그저 시간 낭비가 되기에 십상이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배웠으며 이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명확한 방향성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막대한 양의 프로젝트도 나름의 즐거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기들과 함께 밤을 꼬박 새우며 서로의 프로젝트에 관해 피드백하고 연구하며 외국 기업의 투자보고서를 해석하면서 자료를 수집, 분석했던 시간들은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몇 안 되는 '배움의 즐거움'이었다. 개인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제출한 순간은 A+의 성적을 받았을 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성취감은 덤이었다. 21학년도 1학기 정운재 교수님의 '광고매체론'은 내게 많은 인상과 방향성을 제시한 수업이었다. 1) 광고란 단순히 추상적인 감성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닌, 수치로 체계화하여 객관적인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과 2) 광고 매체의 선정과 기획을 위한 효율적이며 기초가 되는 프로세스를 학습할 수 있었다. 물론 통계와 많은 양의 프로젝트는 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프로젝트를 제출한 이후의 성취감은 A+라는 성적은 물론, '광고'라는 학문에 관한 끊임없는 갈증을 타는 그대에게 약간의 포만감을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어둠 속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하다!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021학년도 1학기) _ 윤순경 교수

이에랑 _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17학번

원하던 학과에 합격한 후, 신입생 때의 나는 당찬 포부로 내 마음을 무장하고 있었다. 미래에 멋진 교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결코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스스로 계속 되뇌었다. 되풀이해서 몇 번이고 반복한 덕분인지 4학년이 될 무렵까지 나는 매일 모범생의 갑옷을 장착하고 수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 매 학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목표와 꿈은 가난해져 가고 있었다. 대학생으로서의 마지막 학기가 다가올수록 단지 학점을 채우기 위해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방대한 범위의 수업 내용을 소화하고 쏟아지는 과제를 제출하면서 지쳐가고 있었다. 그런데 황금빛 꿈과 목표가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을 무렵 정말 기적처럼 다시 내 꿈에 불을 지퍼준 윤순경 교수님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수업을 만나게 되었다. 첫 시작은 단순히 교육학 학점 이수를 위한 목적으로 수강했던 수업이지만, 죽어가던 나의 학습 열망에 숨을 불어넣어 준 최고의 수업이었다.

이 수업에서는 다른 교육공학 수업에서도 다룰만한 교육공학과 관련된 주요 이론을 접할 수 있었다. 교육공학의 정의,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로 대표되는 심리학적 관점, 구성주의가 포함된 철학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에 대해서 배우고 각 관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수업 모형들을 알아갔다. 그러나 이 수업의 핵심적 목표는 교육공학과 교육 방법에 관한 지식의 체계를 단순 축적하는 것이 아니다. 수업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의 관점을 배우면서 비판적으로 사고를 통해 미래의 교육자로서 어떤 관점을 지지하고 그에 따라 학습을 어떻게 정의하고 학생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 인지를 확립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수업이었다. 즉, 어떠한 교수자가 되고 싶은지를 지속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자신만의 충분한 근거를 수집하여 한 관점에 뿌리를 내리도록 첫걸음을 내디디면 수업 내용을 잘 소화했다고 할 수 있던 것이다.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지적 변화 정도를 평가하는 다수의 수업과는 달리 수업 내용과 목표의 포인트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수업 방법적 측면에서도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교수님께서 전달하시는 강의 내용을 받아 적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강의식 수업에 익숙해져 있던 나에게 이 수업의 운영방식은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손님이었다.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플립 러닝' 교육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그룹 토론으로 수업은 진행되었다. 플립 러닝(뒤집은 교실)은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교실에서는 강의식 수업 대신 토론이나 실습과 같은 심화학습을 하는 것으로 전통적 수업의 순서를 뒤집어 놓은 교실 모습이다. 토론은 찬반으로 나뉘 논쟁하는 형식이 아니라 각자의 견해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방식이었다. 사실 나는 이와 같은 수업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토론식 수업처럼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수업을 꿈에도 보기 무서워하곤 했다. 상호 의견교환을 할 때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신박한 답변을 내놓아야만 토론 활동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억눌려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커다란 빙산처럼 커져 있던 걱정은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 수업을 들을수록 스르르 녹아내렸다.

수업 시간에 토론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수업 전날 자정까지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읽기 자

료를 읽고 e-class 온라인 토론방에 자신이 읽었던 내용과 이에 대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작성해야 했다. 각자의 글을 서술하고 게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학우들의 글을 읽고 최소 2개 이상의 댓글을 달아야 했다. 타인의 글을 읽어야 하는 조건은 새로운 시각에서 내용을 곱씹어보고 내용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읽기 자료가 주로 학문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보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동료들의 글은 각자가 이해한 바를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족했던 정보를 쉽게 보완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타인의 글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그들 각자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봄으로써 수업 전 온라인 토론은 생각과 의식의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분량에 제한은 없었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여 단순 의무감으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다고 느끼게 하는 글만 아니면 전체 성적 평가의 30%에서 감점하지 않으셨다.

수업 시간에는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자유 토론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21-1학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라 ZOOM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룹 구성은 ZOOM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여 교수님께서 무작위로 조를 배정해주셨다. 매주 다른 조원들과 함께하면서 각양각색의 경험과 의견을 듣는 것은 사고를 확장하도록 촉진해주는 좋은 기회였다.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교수님께서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토론 전에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먼저 각 그룹 내에서 자기 생각을 교환하는 시간을 제공한 이후에 각 그룹을 돌아다니시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주셨다. 읽기 자료를 읽으면서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이 시간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한 방향으로 무리하게 지식을 주입하거나 중요 내용을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중요 주제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말로 표현함으로써 주체적인 사고를 지닌 학습자의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배우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왜 중요한지, 나는 왜 그와 관련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교수자가 정한 하나의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기에 배움의 즐거움은 배가 되었다. 학생이 수업의 절반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배움의 주인은 진정 학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수님께서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교실 토론 내용이나 참여 태도 등은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부담 없이 토론 수업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실 토론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서 교육적 효과나 수업 참여도 평가 방식이 비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는 수업 종료 후 학생들이 제출해야 하는 성찰일지와 기말 보고서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었다. 각각 전체 성적 평가의 3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수업의 목표는 교과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소화하는지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뿌리가 되어 줄 '나의 배움'과 '나의 학습관'이 무엇인지 정립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태도와 이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성찰일지에는 토론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토론을 통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 타인의 의견이 내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내 가치관은 어디를 향해서 발전되고 있는지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사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요점이었다. 아울러 기말 지필 평가 대체로 제출하는 기말 보고서에도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모든 내용을 스스로 성찰하여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어떤 학습관을 지지하고 싶은지, 교육 공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신만의 근거를 제시해야 했다. 다시 말해, 읽기 자료를 읽고 동료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서는 자기 생각과 의식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거나 변화되기 어려우므로 성찰일지와 기말보고서는 학생의 배움 상태와 수업 참여 태도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평가 방

법이였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모든 학생이 배움이라는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수님께서 학생을 대하는 태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윤순경 교수님께서 학생과 교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수업 첫날에 교수님께서 자신을 순경님으로 불러 달라고 학생들에게 요청하셨다. '교수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되면 그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교수자-학생의 수직적인 관계가 강력하게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권력자로서의 교수자보다 학생들과 동등한 곳에 위치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을 바라봐주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며 배움을 얻어가는 동등한 인간으로 학생들이 자신을 대해주시기를 매번 강조하셨다. 또한, 도덕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시려는 노력도 엿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움을 얻어가기 원하지만, 학생들이 때로는 토론 시간에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고 듣고만 있어도 이는 전혀 성적에서 감점 요소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학생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다. 성찰일지와 온라인 토론에 각각 2번씩 참여하지 않아도 감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학생들의 상황과 입장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교수님께서 학생이 배움은 얻어가도록 유도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에게 허용 범위를 최대한 넓혀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선명하게 잘 보였다. 학생들에게 단 한 번도 강요를 하시지 않으신 분이다. 순경님이라 부르는 것도, 동료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업 중 카메라를 켜는 것도 교수자의 권력을 사용하여 강요하지 않고 단지 '부탁'만 하실 뿐이었다. 현실적으로 권력을 가진 교수자의 위치에서 권력을 가지지 못한 학생의 입장과 상황을 존중하여 불평등한 관계의 간격을 최소화시키려고 하셨다. 교수님의 노력 덕분에 학생-학생, 학생-교수님 사이에 개방적이고도 상호 존중하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눈치 보지 않고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었다. 교수자의 태도가 곧 학생들이 수업과 교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된다는 것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배움을 향한 마음이 황폐해지어 가고 있을 때 만났던 교육공학 수업은 나에게 단비와도 같다. 수많은 교육학 대가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모든 시간을 쏟느라 '나' 자신과 미래 교육자로서의 '나'의 가치관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 배움의 행복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교수님과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의논할 수 있었던 이 수업 덕분에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함께 배움을 얻어가는 즐거움을 되찾았다. 또한, 배움에 있어서 '진실한 소통'의 막대한 중요성을 교수님의 태도와 수업 운영방식을 보며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교수자와 학생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부재하면 진정한 배움과 상호 존중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교육자를 꿈꾸는 많은 사범대 학우들이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이 수업을 꼭 수강하여 교육과 배움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교육자가 되고 싶은지 한 번이라도 깊게 숙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기를 희망한다. 윤순경 교수님의 수업은 그야말로 미래 교육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어떤 가치를 중점에 두고 자기 삶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해 주는 인생의 길잡이 같은 수업이다.

미네르바, 온라인으로 열리는 공론의 장

미네르바인문(2)읽기와토의.토론 (2020학년도 2학기) _ 정현경 교수

최재형 _ 상경대학 경제학전공 17학번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학기 정현경 교수님의 미네르바인문(2)읽기와토의.토론 강의를 수강한 경제학전공 최재형입니다. 해당 시기는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수업방식의 잦은 변경으로 학내 구성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었던 한 학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현경 교수님께서서는 수강생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시는 동시에, 학기의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수업 못지않은 학습효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의의 내용이나 교수님의 태도 등 여러 방면에서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에 다른 교수님들께는 참고하실 만한 좋은 사례가, 재학생들에게는 수강을 권유하고 싶은 좋은 강의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본 강의의 방식과 내용, 수업 태도 등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1. 수업 방식

정현경 교수님께서서는 학교의 수업운영지침을 잘 따르시면서 가장 효과적인 강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개강 후 6주차까지 이어진 전면 비대면 기간에는 강의를 녹화하여 e-class에 업로드해주셨습니다. 영상의 총 분량은 2시간 내외로, 계획된 강의 내용을 온전히 학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에는 교수님의 전달력이 기여한 바가 가장 크지만, 교수님께서 사전에 제시해주신 '수업 준비 과제'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업 준비 과제는 성적평가에 반영되지 수강생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내주셨습니다. 예컨대 3주차 수업에서 텍스트A에 대해 강의해주신다고 하면, 수강생들은 텍스트A를 미리 읽고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 자신이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 텍스트A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 또는 그 외의 자유로운 이야기들을 형식과 분량에 얽매이지 않고 3주차 수업 이틀 전까지 e-class 과제게시판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전학습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수강생들이 제출한 수업 준비 과제를 교수님께서 읽으신 후, 수강생들이 공유하고자 한 생각, 경험, 질문 등을 최대한 담아서, 3주차 강의를 업로드해주셨습니다. 수강생들의 질문은 텍스트를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해주셨고, 수강생들이 느낀 생각이나 경험은 강의 말미에 20여 분 정도를 할애하여 최대한 공유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교수님께서서는 수강생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수업 전에 파악하실 수 있고, 실시간 강의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수강생들은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e-class의 토론게시판을 활용하여 논의를 주고받는 좋은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강생들이 일일이 찾아서 읽어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교수님께서 다듬고 정제하여 소개해주는 이러한 방식 역시 미네르바 강의가 지향하는 토론형 수업이 의도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구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고사는 시험이 아닌 두 번의 글쓰기 과제 형식으로 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 또한 단순히 평가의 수단이 아니라, 수강생들이 학습한 주제 중 각자 흥미 있는 주제에 대해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제를 특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형식도 찬성/반대식 글쓰기

로 한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그 어떤 형식도 허용해주셨습니다. 글쓰기 과제와 관련해 가장 좋았던 부분은 피드백입니다. 문단마다 직접 코멘트를 달아주셔서 좋았던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평가의 공정성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 주제 적합성, 논리적 구조, 글의 형식, 기타 준수사항에 따른 11개의 세부 평가기준을 제시하시고 평가항목별로 배점과 획득한 점수를 명시하셔서 수강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해주신 점은, 공정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에서 강의를 불문하고 모든 교수님들께 큰 귀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1차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2차 과제 시작 전에 주셔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2차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교수님의 세심한 사려도 돋보였습니다.

9주차 수업부터, 이후 다시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당시 학교의 지침을 따라 동시 송출(미러링)로 강의를 진행하셨고, 이를 위해 화상 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이용하셨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방법이었던 만큼 학생들과 교수님들께서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많은 혼란과 불만이 있던 와중에도, 교수님께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하며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1~2교시는 교재인 『미네르바 인문 읽기와 토의·토론 - 인간의 삶과 가치』의 텍스트를 토대로 한 교수님의 설명이 주가 되었고, 3교시는 수강생들의 토론 및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등교한 수강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동안, 등교하지 않은 수강생들은 줌의 '소회의실'에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줌의 소회의실을 통해, 수강생들은 3~4명씩 한 팀이 되어 동일한 회의실 속 각기 다른 방(소회의실)에서 온라인상으로나마 서로의 얼굴을 보며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 주제도 교수님께서 4~5개 정도를 제시해주셔서 다양한 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토론이 잘 진행되도록 교수님께서 모든 소회의실에 차례로 참여하셔서 지도해주시고, 경청해주셨습니다. 토론한 내용은 팀원 한 명이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과 조화를 이뤄 학습효과를 배가합니다. 미네르바 교재의 텍스트는 고전강독을 접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다수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난해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다루는 강의 또한 추상적 개념의 수준에 머물러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지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현경 교수님께서서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텍스트를 우리의 일상 경험에 대입해 풀어주십니다. 또 철학의 딱딱한 언어를 쉬운 언어로 번역해주십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텍스트와 현실의 문제를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전개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활발한 토론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흔히 토론은 학생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어, 적극적 토론수업을 이끌어내는 것은 많은 교수님들께 부담과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현경르바'(정현경 교수님 + 미네르바)의 수강생들은 토론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각자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한 교수님의 스킬 덕분인 것도 있지만, 교수님께서 수강생의 이해도를 향상시켜 사고의 외연을 확장해주신 몫이 크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교수의 뛰어난 전달력이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좋은 본보기라고 할 것입니다.

II. 수업 내용

수강생들은 한 학기 동안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텍스트를 접합니다. 대화와 설득부터 매개와 소통, 사랑과 성, 환대와 관용, 폭력과 평화, 전통과 현대, 생명과 자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서 사유하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제1장 <대화와 설득>에서는 인간됨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두 가지 방식인 '말'과 '글'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고, 말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와 말과 글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김기림의 『문장론신강』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어떻게 납득시키고 설득할 것인가'의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제2장 <매개와 소통>에서는 매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매체 자체가 콘텐츠보다 우선한다는 매클루언의 주장이 콘텐츠가 범람하는 최근의 환경에서도 타당성을 지니는지, 콘텐츠 부실의 문제가 신체와 감각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고 나아가 건강한 소통을 방해하여 매체의 본질마저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시각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물라시옹』을 다루시며 우리가 실재라고 믿는 세계가 진정한 실재인가 하는 물음, 진짜라고 믿는 것에 감춰진 본질적인 허구성, 하이퍼리얼을 만들어내는 이유 등 생각해볼 만한 주제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소개해주신 영화 <트루먼 쇼>는 주제에 대한 흥미를 더해주었습니다.

제3장 <사랑과 성>에서는 사랑은 능동적인 활동이며 참여하는 활동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개성을 존중해줄 때 이뤄질 수 있다는 에리히 프롬의 가르침은, 사랑이 소유와 지배, 복종으로 왜곡되고 변질되는 모습이 자주 목도되는 요즘의 사회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주었습니다. 제4장 <환대와 관용>에서는 웬디 브라운의 『관용: 다문화제국의 통치전략』의 텍스트를 선정하여 '지배구조를 은폐하고 고착화는 피상'으로서의 관용을 경계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텍스트는 관용의 대상을 만들고 규정하는 행위 자체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관용은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아닌 혐오의 표면화를 자제하는 형태로 실현되고, 때로는 이마저도 실패하는 현실의 문제를 고집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을 개인 도덕성의 문제로 축소하는 탈정치화가 지배구조를 고착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다뤄야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존중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합니다. 제5장 <폭력과 평화>에서는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르네 지라르의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그리고 카뮈의 『이방인』을 통해 폭력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선투쟁, 욕망, 식민주의적 사고 등이 형성되고 발현되는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폭력과 갈등은 필연적인 것인지, 우리 사회가 겪는 갈등도 이러한 이론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물음을 소재로 수강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제6장 <전통과 현대>에서는 에릭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을 읽고, 전통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 우리의 전통 중에서는 무엇이 보존할 만하고 무엇을 철폐하거나 바뀌나가야 하는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 만들어진 전통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부정적 측면이 있는지를 균형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 <생명과 자연>에서는 머레이 북친의 『사회생태론의 철학』과 혁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다루었습니다. 북친은, 자연을 인간이 지배하고 정복해야 한다는 사고가 경쟁원리와 얽힌 이해관계와 위계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으로 이를 바라봅니다. 또한 사회운동으로서의 생태운동이 실패하면 불모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는 당장 지구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와 맞닿아있으며, 위험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함을 각성할 수 있었습니다. 『멋진 신세계』 역시 과학기술이 인간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환경을 바꾸어나가면서도 공존의 가치를 우선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교수님의 미네르바 강의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자료를 제시하고 활용하여 이처럼 미네르바 교육이 목적으로 하는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와 타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셨습니다. 철학, 역사, 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고전을 통해, 인간성과 도덕에 대해 사유와 탐구의 기회를 마련해주셨습니다. 특히,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며 직·간접적으로 이뤄진 토론을 통해 타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판적 시각을 함양하도록 하셨습니다. 동시에 토론과 글쓰기 과제를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능력 또한 배양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본다면, 교수님께서 미네르바 교육의 의도와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고 이를 잘 구현하여 강의를 진행하셨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Ⅲ. 교수의 태도

지금까지 교수님의 수업에 대해 공유한 글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존중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태도가 인상적입니다. 이는 특히 토론 및 발표 수업에서 돋보이는데, 수강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그대로 존중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경청해주시며 공감해주시는 태도가 인상적입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수와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배우는 수업을 만들고자 하신 교수님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강생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십니다. “좋은 교수는 학생들의 질문을 이끌어내는 교수”라는 교육철학을 갖춘 교수님답게,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심으로써 강의가 일방적인 강연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셨습니다. 수업 전반에 대한 의견이나 요청사항 등이 있을 경우 연락하는 데 부담을 갖지 말라는 말씀도 늘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네르바 교육이 목표로 하는 ‘민주적인 소통’을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수업방식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수강생들이 원하는 수업 방식을 e-class의 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파악하시고 이에 따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사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의를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한 교수님의 노력이 수강생들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수강생들 사이에서 정현경 교수님의 미네르바 강의는, 오래 전부터 ‘나만 알고 싶은’ 강의로 불려왔습니다. 이는 좋은 수업, 의미 있는 수업을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교수님의 마음이, 늘 학생들의 마음과 이심전심되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교육환경이 꼭 교육의 본질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낯설어한 교육환경에서도, 교수님께서 방법, 내용, 태도 등에서 훌륭한 수업을 이뤄내셨기 때문입니다. 명쾌한 설명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물음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는 미네르바 강의의 본질을 추구하셨습니다. 이처럼 교수님과 저희가 함께 만들어낸 강의는 많은 교수님들께, 또 학생들에게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본 강의를 추천합니다.

자아 성찰과 성장을 도모하는 강의

국제관계개론 (2020년도 2학기) _ 남궁영 교수

최현정 _ 서양어대학 프랑스.EU전공 19학번

나는 2020년 2학기에 수강했던 남궁영 교수님의 국제관계개론 강의를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이는 정치외교학과 전공필수 과목이다. 정치외교학과 학생이라면 한번쯤 국제관계개론을 들어야만 하는데, 꼭 정치외교학과 학생이 아니라 타 전공 학생이라 할지라도 자선 과목으로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강의에서는, 동서문제로 세계가 분열되었던 냉전 시대의 국제질서와,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서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였던 탈냉전 시대의 국제질서에 대해 각각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제3세계와 남북 문제에 관해 종속 이론과 근대화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대표적 국제기구인 UN과 UN 산하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 권한, 그리고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살펴 본다. 이와 더불어서 세력균형과 집단안보체제 개념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국제 정치에서의 핵무기 확산과 통제에 대해서, 북한의 핵문제의 관점에서 통찰해 보고, 남북한 관계와 그에 따르는 국제관계역학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강의 및 과제는 교수님이 저술하신 책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를테면 <강대국 정치와 한반도: 미중의 패권경쟁>, <국제정치경제 패러다임과 동아시아 지역질서>, <분단 한반도의 정치경제: 남한 북한 미국의 삼각퍼즐>과 같은 책을 독학할 것이 요구된다.

이 강의를 추천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교수님의 강의력이 대단하다는 점이다. 정치외교학과 전공 과목이니만큼 강의 시간이 3시간에 육박하기에, 보통은 중간 중간에 지루할 틈이 생기거나, 집중력이 깨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남궁영 교수님의 강의는 말 그대로 지루할 틈이 없었다. 무엇보다, 목소리가 우렁차시고 설득력이 있다. 특히 어디에 방점을 맞추어서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해야 하는지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으신 듯 했다. 그리하여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에서는, 강점을 두어서 발언을 하시는데, 이 때문에 매번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한 국제정치를 다루는 과목이니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단지 책만 보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교수님은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계셨다. 이에 따라 패권 경쟁과 같은 어려운 개념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예시들을 사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를테면 패권 경쟁은 국제 사회 내에서의 권력을 두고 대립하는 양상을 의미하는데, 이를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의 '힘 쉰 아이'와 '약소한 아이'로 대비하여 설명해 주시고는 했던 것이다.

둘째, 단순히 교수님만 강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먼저 교수님은 매 시간마다 배정된 팀이 돌아가면서 배정된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식의 팀프로젝트 발표를 시키신다. 이때 발표가 10분 정도에 머무르는 간략한 과제의 성격에 그치지 않고, 약 1시간 정도의 발표 시간이 주어진다. 즉 학생들은 배정된 주제에 대해 시간을 들여 조사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바는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준비하는 학생이 먼저 그 주제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 과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나도 처음에는 이 발표 과제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고, 너무도 준비할 것이 많아 그저 힘들기만 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표를 준비하고 실제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발표가 끝나고 나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고, 국제정치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발표가 끝나고 나서 교수님은 발표에 있어 어떤 점이 좋았고 나빴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주시는데, 이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스스로 훑아보고 이를 내면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교수님은 강의를 마치고 나서 반드시 강의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이 가는 점에 관하여서 질문할 것을 요청하신다. 학생들 앞에서 손을 들어 질문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질문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내성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어, 손을 들어 질문하는 것이 낯설고 어렵게 여겨졌다. 내 질문이 정말 옳은 것인지, 다른 학생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 멍청하기 그지 없는 질문이 아닐지, 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많이 생각하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수님은 그러한 내 태도를 바꾸어야 함을 지적하셨다. 결국 나는 어쩔 수 없이 용기 내어 질문할 수 밖에 없었는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행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는 나의 개인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나 모호한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배운 이론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적용해 보는 등의 창의적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나는 질문을 통하여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수님과의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레포트와 발표와 같은 과제와 강의 모두 교수님이 저술하신 책들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 부분도 처음에는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다. 3권에 달하는 도서들을 시간을 들여 읽어 보아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레포트나 발표 과제를 이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교수님이 저술하신 논문들을 바탕으로 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를 정독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나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 교수님의 책들을 정독하면서, 그만큼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실제로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면, 국제관계개론과 국제정치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과 쟁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책에서 교수님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꼭 잡고 넘어가시는데, 그에 따라 그 문제에 관한 내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시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남궁영 교수님의 국제관계개론을 꼭 수강해 볼 것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문화콘텐츠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이 강의와 함께!

디지털미디어스토리텔링 (2020학년도 2학기) _ 김세익 교수

최혜민 _ 사범대학 독일어교육과 17학번

한 학기의 교환학생, 한 번의 휴학을 끝마치고 복학한 첫 학기였으므로, 2020년 2학기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업 시스템이 바뀐 학교를 내가 처음으로 경험해본 시기였다. 갑작스레 우리에게 들이닥친 팬데믹 때문에 학교는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처음으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게 된 나는 바뀐 수업 환경이 낯설었고, 그 방법을 터득하는 데 있어,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도 있었다.

김세익 교수님의 강의 '디지털미디어스토리텔링'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사실, 처음 이 강의를 수강 신청할 때만 해도, 꼭 이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다른 강의들과 시간대가 겹치지 않아 수강하기 적절하다라는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다. 교환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수강하지 못한 이중전공 문화콘텐츠학과의 수업을 최대한 많이 들어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된 첫 수업에서 나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수업 첫 날, 교수님은 사전에 공지해주신 대로, 본인께서 직접 녹화하신 영상 파일과 수업 자료 pdf 파일을 올려주셨다. 영상의 시작에서 교수님은 자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던지면서 자신에 대해 소개하셨다.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로 시작하는 듯했던 오리엔테이션은 자연스럽게 수업 내용으로 이어졌다. 교수님은 '감각 대상', 그리고 교수님을 둘러싼 키워드들은 '경험(이해)'의 예시가 되었고, 이는 곧 문화콘텐츠의 향유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상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것이 강의의 첫 번째 수업 내용이었다.

교수님은 강의 계획서에서 해당 강의를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제 장르의 스토리텔링을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한 학기 동안 매우 충실히 이행되었고, 이 강의를 통해 나는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수업 내용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이용되는 개념들을 학생들에게 확실히 인지시켰다는 점이다. 사실, 문화콘텐츠학은 아직 역사가 길지 않은 학문이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해당 학문의 명확한 정체성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 배우는 분야가 다소 광범위하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문화콘텐츠학과를 전공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누군가 문화콘텐츠학이 무엇을 배우고 공부하는 학문이냐고 물었을 때, 선뜻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해당 강의는 전공생으로서의 이러한 고민을 해소시켜주었다.

먼저, 교수님은 본격적인 수업의 시작에 앞서 '문화콘텐츠'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였다. 이때, 단순한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닌, 문화콘텐츠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용어들을 함께 살피고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배우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분명히 인지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개론' 강의에서 그 설명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문화콘텐츠란 개념의 기원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념의 의미를 단어 하나 하나 세세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그 본질을 알게 하였다. 더불어 문화콘텐츠가 위치하는 학문적 지형을 설명하면서, 문화콘텐츠학을 왜 배워야 하며, 해당 학문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사실

문화콘텐츠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분석, 비평 등 그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게 느껴진다. 때문에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할지, 문화콘텐츠학이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았다. 이에 교수님은 강의에서 전공생으로서 가장 공들여야 할 부분을 제시해주었고, 이는 곧 문화콘텐츠학과의 전공생으로서 학문의 방향성을 제시해줌과 같았다. 해당 강의를 수강하면서 문화콘텐츠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콘텐츠를 바라보는 태도를 배우고, 교수님의 해당 학문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학문의 역사부터 이어지는 탄탄한 수업 내용은 전공생으로서 해당 학문을 배우는 이유와 정체성을 스스로 찾고, 얻게 하였다.

또, 해당 강의를 좋은 강의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는 강의 내용이 뻘하고 알지 않다는 점이다. 문화콘텐츠학과의 전공생으로서 알고 있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쉽게 혼용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강의에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두 개념의 의미를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며, 나 역시 문화콘텐츠학과의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의미로 추측해낼 뿐이었다. 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두 개념의 차이와 본질을 배울 수 있었다. 명확한 근거와 이론을 토대로 얻어지는 새로운 내용들은 강의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다.

해당 강의는 세 시간 동안 이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강의를 듣다 보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매주 세 시간의 강의를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수업 내용의 구성 및 전개에 있어 기승전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매 강의들은 전 주치의 강의와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매주 강의의 학습 목표는 분명했다. 또한 한 주치의 강의 내에서 결론까지 도달하는 수업의 과정과 교수님의 설명은 매우 타당했고 흥미로웠으므로 지루함을 느낄 수 없었다. 다양하고 뻘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이론을 토대로 한 강의임에도 쉽고, 지루하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교수님은 최신 트렌드의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해당 학문이 현재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강의 곳곳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더 쉽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고민의 흔적이 엿보였다.

교수님은 수업 시간이 되면 항상 시간에 딱 맞춰서 녹화된 수업 영상을 업로드 하였는데, 때때로 기존의 강의 시간을 넘어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부수적이거나 본인의 흥미에 맞지 않은 내용은 넘어가도 된다고 말씀하면서, 내용이 많아지는 것은 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최대한 많은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이라고 하셨다. 교수님은 비대면 수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고, 그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자신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워가고 얻어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비대면 수업이기는 하나, 교수님은 학생들과 꾸준히 소통하려고 노력하셨다. 무언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꼭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투표를 진행하면서 함께 결정하고자 하였고, 항상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셨다. 또, 매주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 각자가 '이클래스' 사이트의 '열린 게시판'에 강의에 대한 감상 및 학생 자신의 의견을 남기게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피고 되새기게 하며, 강의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더할 수 있게 하였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글을 매주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학생의 의문이나 궁금증이 남겨 있는 글에는 바로 친절하고 자세한 댓글로 답해주셨다.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갖고 있는 질문에는 바로 다음 강의에 반영하여 수업을 전개하였다.

내가 이와 같은 활동을 진심으로 고민하고 즐겁게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 강의가 끝날 때면 교

수님께서 항상 다음 강의 내용에 대한 예고와 함께, 이번에 배운 강의 내용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여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이다. 교수님은 매 강의에서 단순히 어떤 사실과 이론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사실과 이론을 토대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학생들에게 새롭게 확장된 생각의 여지를 줌과 동시에, 전공자로서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는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 내용 및 방식에서도 보여졌는데, 교수님은 그 동안 배웠던 내용을 단순한 사실 확인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레포트 제출로 대체된 중간고사의 주제는 “공간 스토리텔링은 가능한가?”였다. 단순히 지식의 확인을 요하는 과제가 아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더할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강의 내용을 충실히 들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학생들의 확장된 생각을 확인하고자 하셨다.

‘디지털미디어스토리텔링’ 강의를 수강하면서 김세익 교수님의 ‘문화콘텐츠학’과 ‘수업’에 대한 애정과 이를 대하는 태도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교수라는 위치에서도 안주하지 않고 항상 노력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었고, 학생으로서 그분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 글과 함께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모든 학생들의 진심이 느껴졌다. 이 수업은 내게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오래도록 좋은 강의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문화콘텐츠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나에게 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은 문화콘텐츠학 전공자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찾게 해주었다. 문화콘텐츠학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거나, 문화콘텐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강의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다.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교육혁신원(Institute for Educational Innovation)

홈페이지 <http://iei.hufs.ac.kr/>

주소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교수학습개발원 304호

TEL 02-2173-2127, 2761

FAX 02-2173-2617